

“젓소개량을 위하여 열심히 뛰고 있는 구학목장을 찾아서...”



2006년 한국홀스타인품평회 행사에 즈음하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구학목장(대표 전덕중, 前중축개량산유능력검정중앙회장)을 방문하였다.

몇 달 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미경산 5부, 6부에 출품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전덕중 대표를 만나 품평회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았다.



품평회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원의 의무이며, 목장의 1년을 평가받는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한다.

한국중축개량협회에서는 우수한 개체가 출품되어 개량의 활성화는 물론 다른 농가에게 우수한 젓소를 보여 줌으로써 모범이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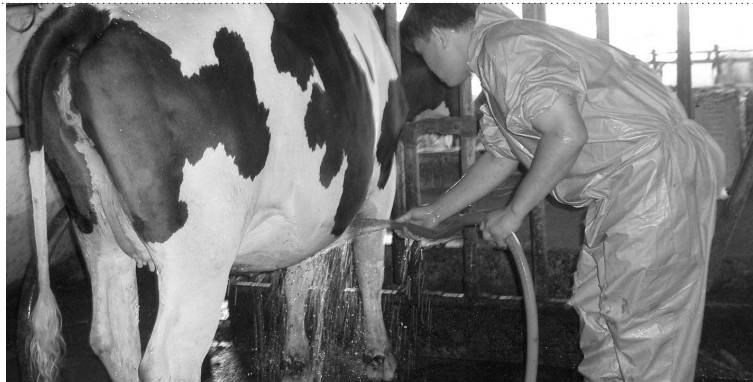
야 한다. 더불어 출품두수에 연연하지 말고 사전 심사를 강화하여 우수한 개체가 행사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지역대회에서 출품두수에 집착하다 보니 전년도 대회보다 출품축의 수준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 아쉬움으로 남았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매에 출품하는 개체는 출품농가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는 목장에서 상위 10~20% 수준을 대상으로 분양하다 보니 그 개체가 낫선 목장에서 적응하는 과정과 사양관리 방식의 차이로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행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경매에 출품하여 분양하는 개체는 목장의 상위



5% 이내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유전적인 불량 형질이 나타날 때에는 리콜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시킬 필요가 있다. 즉, 기존 농가들의 잔치로 여겨진다면 나머지 농가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이요, 의욕을 상실할 것이다.

또한 출품 중에 발생한 불의의 사고축에 대하여 협회와 행사집행부, 출품농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품평회에 처녀 출품하는 농가들이 우수한 성적을 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등외 또는 최하위를 기록했을 경우에는 좌절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좌절하기보다는 등외에 위치했으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 즉 체계적인 개량과 사양관리의 합리화를 통하여 우수한 개체를 생산·육성한다면 목장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다음 대회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사전문가의 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출품우 선정을 기존 출품농가들을 대상으로 주로 선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개량사업의 활성화와 한국낙농의 선진화를 위하여 새로운 농가를 발굴하고 동

